

드레스덴 헤어스타일*

©기젤라 엘브라흐트 이글하우트

2005

이세경은 백자로 만들어진 세속적인 접시, 컵, 타일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작품세계 속 이미지를 전달해낸다. 한국에서 이미 도자기로 학위를 얻은바 있는 그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오브제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는, 자세히 들여보아야만 겨우 알 수 있을 법한 흥미로운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얇은 선들로 세공된 이 그림들은 바로 머리카락을 정교하게 붙여 완성한 것이다. 흔히 생각할 때 접시위의 머리카락은 끔찍하리만치 싫은 것일 테지만 고도로 숙련된 솜씨와 예술적인 표현으로 이뤄낸 그녀의 세계에서는 훌륭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작가는 머리카락을 정확성을 기해서 한올 한올 붙여가면서 전통 도자기의 패턴을 모방해내고 있다. 이세경은 역사적인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티프를 발견하는데, 예를들면 도자세트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 마이센의 꽃문양이라던가 비더마이어 양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발랄함, 혹은 중국, 네덜란드, 아라비아 문양등을 원본으로 삼는 것이다. 그녀는 역시, 염색을 통해 얻은 파란색 빨간색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17세기 네덜란드 타일화, 선박, 무역상인, 놀고 있는 아이들, 꽃 디자인의 전형적인 모티프 등을 현대적 양식의 하얀색 타일위에 재구성해내기도 한다. 러시아 절대주의의 소박하면서도, 기하학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접시들은 1920년대 추상적 장식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세경은 마치 박물관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자신의 작업을 전시하는데, 벨벳으로 덮은 좌대 위에서 혹은 완벽하고 깔끔하게 조명이 떨어지는 진열장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녀의 개념적이면서 예술적인 관심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원형들의 단순한 모방차원을 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차용 미술의 차원에서 볼 때 작가는 일종의 생산적 관객 입장에 서서 예술작품의 생산과 수용의 조건들을 결정적으로 반영해내는데, 이는 다른 이들의 예술 표현을 빌려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선 관객은 수공의 노력이 깃든 그의 예술적 능력에 매료되며, 더불어 그녀가 한

*독어원제: Meissener Frisiert, 제50회 베르기세쿤스트아우슈텔룽에 기재된 텍스트, 솔링엔, 독일

결같이 기울이는 정확성에 대한 노력에도 빠져든다. 전통에 대한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는 보는 이의 미학적, 감각적 인지를 유희적인 차원으로 삼고 즐기면서도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 그녀의 작품에 대한 지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은 변증법적 차원에서 헤아려볼 수 있는 상대적인 것들에 관한 것으로, 예술과 예술 작품 사이, 역사와 시간 사이, 원작과 모방 사이, 포스트모던 맥락과 미학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뛰어난 수공예적 접근과 기술적 재현에 대한 매력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만큼 오히려 오래된 문양들의 도안 그 자체는 중요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모방의 과정과 다른 예술가 회화의 차용이 창조적 행위와 그 가치에 대한 문제를 다른 틀에서 보도록 유도하여, 예술 생산이 무엇이며 예술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더불어 던진다. 결국 예술작품의 정체성이 중대하게 검토되는 지점인 것이다. 이세경의 작품에서 예술적, 개념적, 철학적인 전략을 들춰내는 것은 감각적이면서도 지적인 즐거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시간과 문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